Life p/14

몰트 맥주시장 삼국지

메트로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제315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7

귀여움 무장한 '여자친구'

증세 없다있다없다??

대선공약파기 논란… 결국 서민 주머니만 털릴 듯 p/3

문재인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냐?"

박근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거 아닙니까"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

포스코 구조개혁 있다없다있다? p/9

권오준 포스코 회장

북 새 선전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한 북한의 새 선전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는 선전화가 제작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 국방정보국 "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 국장은 이날 미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 세계의 위협'을 주제로 연한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트 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합동참모본부의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의 KN08(북한의 이동식 신형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또 북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반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전진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북 국방위 "미국과 상종 않겠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등을 강력 비난하고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先)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 성명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한미연합훈련·연합사단 등을 비난하며 "극도로 포악무도해지는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마감하게 될 종국적 멸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른 곳이 아닌 미국 땅에서 우리의 백두산 총대로 보기 좋게 써주기로 결심했다"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해 위협했다.

국방위는 미국이 핵무력·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미제는 미국 본토 제 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그 시각이 분분초초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죄악의 총본산·강도의 무리들·승냥이 본성·히스테리적 대결광기 등의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했다.또 미국이 '무너진 로마제국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군의 대응은 "미합중국에 가장 쓰디쓴 참변을 들씌우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제1비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언급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구제역에 엉뚱한 백신"

김우남 위원장 언급…"정부 백신 효능 철저 검증"

축산농가에게는 되풀이되는 구제역 발생은 공포다. 이 구제역 공포가 실은 정부가 엉뚱한 백신을 선정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4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나고 항체 형성률이 100%인 농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들의 백신 미접종에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정부의) 차단방역 실패와 백신 효능의 문제 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구제역 발생농장별 항체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장 72곳 중 '아시아1형'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농장은 21개 농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곳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항체 형성률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 중에는 '아시아1형'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100%인 곳도 2곳이나 됐다.

김 위원장은 "항체 형성률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제대로 막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역가 백신을 사용하면 구제역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해지고,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구제역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현행 백신의 방어력 한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가 오늘에서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백신 효능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긴급백신용으로 새로운 백신 완제품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백신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미세먼지 속에 사라진 N서울타워 봄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통 처벌하고 규제하고

아동학대 정부대책 살펴보니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 자격요건을 안전연수 이수,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가칭 블루카드)로 한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2013년 9월 기준 68%에서 2016년 90%까지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교사 양성·자격 정비·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선행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고 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증세 없다있다없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종합선물세트'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고유의 복지 아젠다를 빼앗긴 야당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후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정책기조가 됐다.

2015년 2월 4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입을 빌려 '정 안 되면 증세하겠다'는 말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이미 파기됐다는 비판도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발언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뱃값을 느닷없이 2000원 올려 2~3조원 더 거두어들이고 연말정산 느닷없이 해서 2~3조원 거두어들이고 (모두) 5~6조원을 더 거두어들였으면 그것이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을 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가 해야지 서민 주머니의 돈은 나갔는데 그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갔는데 증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입에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증세'가 언급된 이상 실제 증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선 추진한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선 때부터 나온 말이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정부 2년간 종합소득세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3년 11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말기보다 9.7% 증가했지만 2014년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에 그쳤다. 20~30%대인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종합소득세는 고소득자의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박 대통령, 중국 국방장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창 부장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도 없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MB는 자원외교 국조 출석요구에 응하라"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출석요구 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의 저지선에 막혀있다. /연합뉴스

"한국 테러 사각지대…테러방지법 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우리나라가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 국가이지만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 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IS(이슬람국가)는 현재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할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한정시켜 야당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권력) 오용에 대한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그런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아기자

복지공약 지방에 떠넘기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 전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 시행 중인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제는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고 나선 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부담과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의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백한 꼼수이자 책임전가"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백한 만큼 이제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병형기자

이력서에 왜 부모직업이 필요한가요?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재하거나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고 면접에서 물어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대상자의 업무·임금·채용 예상 인원·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광진·김성곤·박광온·박민수·박영선·부좌현·신정훈·이개호·이찬열·장병완·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윤아기자

미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취임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 사상 처음으로 김치냉장고가 입성했다. 사진은 관저 주방에 놓인 김치냉장고 앞에서 주지사 부인으로 한국계 첫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여사와 주방장이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초 만에 남성용→여성용

metro Hong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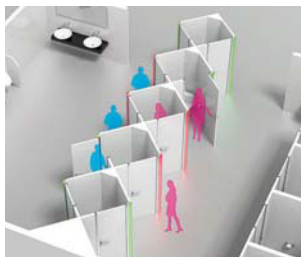
'트랜스포머 화장실' 화제

부족한 화장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3일 메트로 홍콩은 타이완 둥하이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인 천스성과 라이위루가 디자인한 '젠토일렛(Gentolet)'을 소개했다. 두 학생의 졸업작품인 이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대상까지 받았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남녀 화장실 중간에 공용 화장실 공간을 만들고 양쪽으로 문을 낸다. 한쪽에서 문을 열면 다른 쪽 문은 자동으로 잠긴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로 들어온 사람이 문을 열면 여자 화장실 쪽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을 생각해낸 천스성은 "남자화장실에는 사람이 없지만 여자화장실에는 줄을 길게 늘어선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며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많을 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해 이런 디자인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화장실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 남자든 여자든 모두 이 디자인을 좋아할 만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공용칸을 사용한 후 다른 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이국명기자

참수 이어 화형…더 잔혹해진 IS

요르단 정부 보복 사형 강행

IS가 요르단 조종사 인질을 화형시키면서 그 잔혹성에 전세계가 공분했다. 애초 인질은 협상의 수단이 아닌 IS 선전용에 불과했다.

IS는 3일(현지시간)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산 채로 불태우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F-16 전투기 조종사인 알카사스베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주도한 국제 동맹군의 IS 공습에 참가했다가 전투기 추락으로 IS에 생포됐다.

3일(현지시간) 마즈 중위의 부인 안와르 알 타라우네흐(가운데) 등 여성들이 수도 암만의 시위에서 아랍어로 '우리는 모두 마즈'라고 적힌 마즈의 사진을 들고 '이슬람국가'(IS)의 잔혹성에 항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동영상 속에서 알카사스베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채 검은색 쇠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가 입은 옷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로 젖어 있다. 복면을 한 IS 대원이 옷에 불을 붙였고, 알카사스베 중위는 비명을 지르다 곧 숨을 거두었다. IS는 그의 시신과 쇠창살을 불도저로 밀어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다. 영상은 '요르단 내 무슬림이 다른 요르단 조종사를 죽이면 100 디나르(IS 자체 화폐)를 주겠다'는 선전 문구와 함께 끝난다.

그동안 IS는 인질을 참수나 사살로 살해했으며 화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IS가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충격 효과를 배가하려는 의도다. 미국 국무부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필립스는 "IS가 잔혹성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고인의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한다"면서 "모든 국가들은 전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IS 만행을 규탄했다.

◆ 요르단 정부도 보복 살해

자국민 조종사 화형 소식에 비탄에 잠긴 요르단 정부는 즉각 보복에 나섰다. 4일 요르단 정부는 IS가 석방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사형수 사지다 알 리샤위(44)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은 IS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이날 오전 4시 집행됐으며 수감 중이던 알카에다 간부 지아드 알 카르볼리도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

알 리샤위는 이라크 출신으로 2005년 9월 요르단 암만 래디슨SAS 호텔에서 폭탄 테러를 시도해 60명을 사망시킨 고위 테러리스트다. 당시 남편과 함께 자살 테러를 시도했지만 혼자 요르단 당국에 생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째 수감 중이었다. 지난달 27일 IS는 알 리샤위를 24시간 내에 석방하지 않으면 요르단과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알 카르볼리는 2008년 이라크에서 요르단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인물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타이베이서 여객기 하천 추락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항공의 국내선 여객기가 4일 타이베이에서 이륙한 직후 공항 인근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 최소 9명이 사망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vs 공화당 기싸움 가열

오바마케어·이민개혁안 놓고 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간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AP·CNN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래들리 브라인(공화·앨라배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입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대한 공화당의 백지화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제외한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이 27일이라는 점이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국경 경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부처 인원의 15%(3만 명)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이국명기자 kmlee@

하나·외환銀 조기합병 '안갯속'

법원 "합병절차 6월까지 중단"… 하나금융 예비인가 신청 철회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 은행의 합병 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위반한채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이에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1962.79 (+10.83)	598.23 (+4.92)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1.96 (+0.02)	1085.00 (–14.20)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연 2.5% 금리로 1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된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300만원 한도, 연 5.5%대의 대출상품으로 3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씨티 리워드…' 이벤트

한국씨티은행은 4일 '씨티 리워드 비자카드'를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제1회 신용카드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카드로 기본적립이 최대 1.5%까지 제한 없이 적립된다. 또 쇼핑과 휴대폰, 교통주유, 쇼핑, 교육 등 5개 카테고리에서 사용 액의 4%~20%까지 특별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2만개 포인트 가맹점에서 1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도 전환 가능하다.

특히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없고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상시 제공된다.

한편 새롭게 출시하는 '씨티 리워드 비자카드'의 디자인은 한국 고유의 태극문양과 씨티 글로벌 브랜딩인 블루 웨이브가 형상화됐다.

오는 3월 31일까지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발급월 포함 그 다음달 말까지 50만원 이상 사용시, 같은 기간 동안 쌓은 포인트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금감원-KB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은 4일 국제 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에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생필품을 구입하는 설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구매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4474가구를 지원했다. 이날 진웅섭(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윤종규 은행장이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박종복 SC은행장, 국내 철수설 강력 부인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한 미래 비전 설명

박종복(사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은 4일 끊임없이 제기되는 철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회사 비전으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키로 했다.

박 행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행장은 "철수 논란이 있어왔지만 한국인이 행장이 된 만큼 이제는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믿는다"며 "내 후배이기도 한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하고 회사를 믿고 떠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보답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C은행의 경영 비전과 전략도 밝혔다.

그는 먼저 SC은행을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박 행장은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란 내국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동반자인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은행"이라며 "거래 고객 모두가 스탠다드차타드의 국제적 네트워크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점포와 채널을 국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생보사, 고령층 위한 사회공헌활동 '눈길'

저금리·저성장 지속에 실버층 새 판매타깃 부각 '한몫'

국내 보험업계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노령층이 새로운 판매 공략층으로 부각된 것도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30일 사회복지법인인 '신나는 조합'과 함께 은퇴한 시니어를 사회적 기업과 연결해주는 창업·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만 4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시니어들은 6월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 6월까지 교육 받는다. 이후 창업팀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과 멘토의 도움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취업팀은 사회적기업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는 등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라이나생명은 최근 은퇴한 기자들을 모집해 강연과 사회공헌 잡지 제작 등을 재능기부로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은퇴 후에도 재능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은 이밖에도 3년째 어버이날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홀몸어르신 사랑잇는 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IBK연금보험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재가(在家) 어르신의 이동편의증진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시설 6곳에 차량을 후원했다.

이 차량은 해당 노인센터가 어르신께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방문요양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활동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노령층 보험상품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지난 2000년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이 비중은 12.7%에 달해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반면 노인의 고용률은 갈수록 높아져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80만6000명에 불과하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수는 ▲2020년 281만6000명 ▲2030년 467만3000명 ▲2040년 640만4000명 ▲2050년 734만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노령층의 보험활용도는 낮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17.0%에 불과했다. 이는 60세 미만의 64.7%에 4분의 1수준이다. 생명·장기보험의 60세 이상 가입률도 각각 45.7%, 24.5%로 60세 미만 가입률(각각 65%, 62%)보다 크게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보험시장 선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국의 고령층 지원대책과 관련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보험연수원, 제3보험 분야 손해사정 실무도서 나왔다

보험연수원은 정밀한 손해사정과 적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실무지식이 포함된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제3보험편)'를 신규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도서 발간은 보험사고의 조사와 보험금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와 보조인들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참고할만한 실무지침서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도서는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 학계를 두루 경험한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제3보험 분야 손해사정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집약하여 저술했다. 특히 제3보험 상품약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이 수록됐다. 자주 발생하는 현장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분쟁사례, 주변지식 등도 포함됐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전문지식의 보급과 올바른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적극 발굴해 실무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NH농협생명, '2015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NH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5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이 대상이다. 수령방법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활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역총국 및 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령금액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콜센터(1544-4000)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찾을 수 있다. /NH농협생명 제공

라이프플래닛, 청소 서비스 제공

'그대愛드림' 이벤트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오는 27일까지 '청춘愛드림' 시즌2로 '그대愛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젊은 세대가 현실에서 벗어나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기획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공

저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욕실·에어컨·매트릭스 등의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이프플래닛 청소 박스도 제공된다.

참여 방법은 '꿈꾸는e저축보험'의 마이크로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http://bit.ly/1CQJGFs)에서 간단한 퀴즈 정답을 입력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3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3월 9일부터 31일 중 원하는 일시를 선택해 청소 서비스와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박창원 라이프플래닛 마케팅팀장은 "2535세대 청춘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미래의 꿈과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상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성 있는 저축과 소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고 사상자 27%↓

삼성교통硏, 제한속도 하향사업 교통사고 건수 조사 결과 공개

교통속도 제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18개 도심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벌여 교통사고 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후 6개월간 사상자 수가 그 전 6개월보다 26.7%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 전인 지난 2013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671건으로,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548건, 사상자 수는 494명으로 각각 줄었다.

편도 1차로(61개 구간)에서는 사상자 감소율이 31.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2차로(50개 구간)는 21.4%, 3차로(7개 구간)는 25%였다.

제한속도 감소폭이 클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상승했다. 시속 30km를 줄인 구간(50곳)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에 달했다. 시속 20km를 내린 구간(36곳)의 감소율은 33.9%였고, 시속 10km를 줄인 구간(32곳)의 감소율은 12.8%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춰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작년 흑자 전환… 한숨 돌린 증권업계

구조조정·금리인하 여파로 실적 개선 영향
증시 거래대금 증가 긍정적… 차별화 관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짓눌렸던 숨통이 트였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비용 절감을 이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채권평가이익이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에 주 영향으로 작용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166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22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DB대우증권은 지난해 각각 2698억원, 2031억원의 영업익과 순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영업익과 순익이 전년보다 각각 190%, 165% 증가한 2051억원, 1821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증권은 401억원의 영업익과 352억원의 순익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교보증권의 경우 영업익과 순익이 각각 234%, 162% 증가한 337억원, 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실적 성장이 눈길을 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누계 영업익 1651억원, 매출액 1조4633억원, 당기순익 1259억원을 기록했다.

유화증권만 지난해 영업익이 63억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지만 매출액과 순익은 각각 178억원, 83억원으로 18.1%, 34.5%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풀이됐다.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를 선호하는 가운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인력 감축과 지점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결산월이 바뀌면서 회계연도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것도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도 금리 인하의 훈풍을 맞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금리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며 "통화당국이 기본적으로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금리가 더 낮아지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요인이다.

반면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시 가뭄 속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1월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6조4000억원으로 종전 평균 5조5000억원대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 추세를 탔다.

결국 올해 증권사들은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춰 연금분야나 기업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 특화 분야를 키워 새 먹을거리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산업의 차별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노른자위' 연금시장 잡아라!

증권업계 조직개편 나서

주요 증권사들이 저금리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금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연금 시장을 잡자'는 것이다. 단순히 상품 출시에 그치지 않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연금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말 정보보안 강화와 연금비지니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연금사업과 신탁업무를 전담하는 '고객자산운용본부'를 신설했다. '고객자산운용본부'는 고객 자산의 창조적 운용과 고객수익률 제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에 따른 시장 주도적 지위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도 올 한해 연금사업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맡고 있는 '기업 RM부문'을 1부문, 2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웰스매니지먼트(WM)와 연금사업 강화를 위해 투자솔루션 부문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과 인사를 최근 단행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자산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연금 상품을 담당하던 기존 상품전략부의 개인연금업무를 라이프 컨설팅부로 통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대상 연금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을 비롯한 전체 연금상품 온라인몰인 'IRP연금자산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과 개인연금, 방카슈랑스 등 은퇴상품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또 상품 검색은 물론 계좌개설, 가입, 연금 지급 등의 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연금에 대한 교육 자료와 최신동향, 리서치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시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들이 연금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연금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증권사 간의 연금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happy+ ELB/DLB/ELS 5종 공모
KOSPI200지수
KOSPI200 레버리지 지수
HSCEI/EuroStoxx50지수
KOSPI200/HSCEI/EuroStoxx50지수
WTI 최근월 선물
2.4(수)~2.6(금)

최고 연 11% 수익추구 ELB 등 5종 판매 동부증권은 오는 6일까지 최고 연 11.0%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최대 연 8.0%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세이프 제 127회 파생결합사채(ELB)'는 1.5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평가기간동안 기초자산이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2.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동부증권 제공

거래소 노조 "금융위 관치 중단하라"

금융위 경영권 침탈·인사 개입 반대

한국거래소 노조는 4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권 침탈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받기 위한 정관 개정을 앞둔 것에 대해 노조 측은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소유로 이전하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며 "민간기업인 거래소에 금융위원회가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사영기업이므로 이 같은 정관 개정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지정 해제 통보를 받고 방만경영 재발에 대비해 금융위 정관 개정을 적용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4일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권 침탈 및 낙하산 인사 투입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보라기자

금융위의 낙하산 인사 투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래소 노조 측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조 측은 "오는 3월 말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금융위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금융위 1급 인사를 내려보내려고 한다"며 "지난해 12월 초 거래소 임원진들이 이같은 인사 예정과 관련해 협의하고자 금융위에 찾아갔으나 금융위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과 정찬우금융위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낙하산 인사는 실체 없는 소문이며 노조가 이에 선제적 반응한 것"이라며 "특정 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관 개정 역시 거래소가 자진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방만경영 등을 막기 위한 방편인 정관 개정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purple@

바닥 모를 포스코 주가… 권오준 회장 영향력 언제

지난해 9월 대비 30% 감소… 현대제철에 영업이익률 추월 당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의 주식가치가 연신 하락하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64)이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미래가치를 어필하고 있지만, 떨어지는 회사가치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4일 종가기준 포스코 주가는 2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권 회장 취임 후 최고가를 찍은 36만3500원(지난해 9월 12일)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올해 들어 포스코 주식 370주를 1억여원에 장내 매수했다.

2012년 이후 매년 포스코 주식을 매입해온 권 회장은 현재 16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권 회장이 자사주가 저평가됐다는 메시지를 직접 드러내며 책임경영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실정이다.

해외 계열사들의 적자와 구조조정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한 와중에 취임 1년이 돼가도록 그가 보여준 영향력이 크지 않은 탓이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권 회장이 이끈 포스코는 나름 선방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철광석, 철스크랩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하락으로 생산 원가가 낮아지고 환율은 상승해 실적개선 효과를 본 덕분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국내 경쟁사인 현대제철과 영업실적을 비교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현대제철이 자신 있게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할 만큼 영업이익 증가폭에서 포스코를 압도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별도실적으로 매출액 29조2189억원에 영업이익 2조3500억원을 올렸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4.3% 줄고, 영업이익은 6.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8%로 전년 대비 0.7%p 올랐다.

반면 현대제철은 매출액 16조329억원에 영업이익 1조4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5.12% 늘고, 영업이익은 100.95%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9%로 전년 대비 3.4%p 상승했다.

규모는 절반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증가와 이익률 상승폭으로 볼 때 포스코보다 훨씬 내실 있는 사업을 꾸린 셈이다.

이같은 권오준호의 실적부진은 위상하락으로 이어졌다.

2013년까지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3위를 지켰던 포스코는 지난해 말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우, 현대모비스, 네이버에 자리를 내주며 8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포스코는 신용등급이 한국기업평가로부터 20년 만에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철강협회 제공

이길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산업의 올해 전망은 부정적"이라며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수요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중국산 철강재의 수출입 시장에서의 영향 확대와 대규모 투자에 기인한 국내 철강재 공급과잉 지속 등 비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철강내수 성장 둔화, 과잉설비, 불투명한 구조조정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시장에서 중국 철강재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수요기반·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등급차별화는 이어질 것이다. 철강시장 구조 재편으로 업계 전반의 시장경쟁력 변화가 유발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라는 전속시장을 보유한 현대제철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동국제강,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1억9200만원 전달 동국제강은 4일 송원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대학생 48명을 부산공장으로 초청해 장학금 1억92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제강 제공

대우조선해양, 2억불 규모 LNG선 1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1월에 이어 2월 첫 수주도 가스선으로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약 2억 달러 규모의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친환경·차세대 LNG선으로 건조되는 이번 선박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이 장착된다.

해당 시스템은 천연가스의 선박 동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공급장치와 운송 시 발생하는 손실률을 낮추는 재액화 장치(Partial Re-liquefaction System)로 구성된다.

해당 장치를 만디젤 사의 가스분사식(ME-GI) 엔진과 결합해 선박에 설치하면 자재비 절감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과 동형의 LNG선 시운전 모습 /대우조선 제공

연료효율을 기존 DFDE(Dual Fuel Diesel Electric) 엔진 대비 20%까지 높일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LNG 운반선의 평균 속도인 12노트(22km/h)로 운항할 경우 하루 최대 1만5000 달러까지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환경 규제 방안과도 부합한다고 사측은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역동적인 '올 뉴 투싼'

외관 렌더링 첫 공개

현대차가 오는 3월 출시할 예정인 투싼 후속 모델의 차명을 '올 뉴 투싼(프로젝트명 TL)'으로 결정하고 외관 렌더링을 3일 최초로 공개했다.

외관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올 뉴 투싼은 ▲대형 헥사고날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담한 전면부 ▲강인한 실루엣과 날렵한 라인으로 스포티하고 강인한 이미지의 측면부 등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 투싼은 2004년 소형 SUV로 탄생해 2009년 2세대 모델을 거쳐 오늘날까지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경제성으로 큰 인기를 끌며 현대차 글로벌 최다 판매 SUV에 등극한 모델이다.

이번에 렌더링이 공개된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로 현대차의 최첨단 주행안전 사양과 프리미엄급 편의사양이 대거 탑재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뉴 투싼은SUV만의 대담한 이미지에 모던하고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을 완성했다"며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통해 다이내믹하게 강화된 주행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형 SUV의 주요 타깃층인 20~30대 젊은 수요층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뉴 투싼은 오는 3월 3일 개막하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종훈기자 fun@

투싼 후속 모델 렌더링

이재용 부회장 '헬스케어 사업' 힘쓴다

태양광 사업 결국 포기… 미래 먹거리 헬스케어 집중

삼성그룹이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지목했던 태양광 사업을 정리하고 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0년 5월 의료기기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바이오·제약, 전기차 배터리를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정하고 10년간 무려 23조원 이상을 투입해 50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의료기기 시장 선두업체인 지멘스의 조 케저 회장을 만나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에 관한 협력을 논의했다. 11월에는 스위스를 방문해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를 방문해 세베린 슈반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해 바이오의약 사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태양광 사업은 단기에 성과를 발휘하기에는 시장여건이 녹록치 않아 이 부회장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 매진하는 것을 택했을 것"이라며 "주력사업인 전기·전자 사업과도 헬스케어 사업을 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양전지의 경우 6조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1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만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은 태양광 사업이 4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자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삼성 SDI와 삼성정밀화학은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해지자 사업 중단 선언과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삼성SDI의 태양전지사업 철수로 사실상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뗐다. 삼성SDI는 태양광 사업 중단 여파로 지난해 4분기 1288억원의 순손실액을 기록했다.

삼성정밀화학은 선에디슨과 지난 2011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50대50의 지분으로 SMP를 설립했지만 첫해 9억원, 2012년 20억원, 2013년엔 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삼성정밀화학은 지난해 SMP 지분 35%를 선에디슨에 넘기고 태양광 사업을 정리했다. 대신 선에디슨으로부터 자회사인 선에디슨반도체(SSL) 주식 23.19%를 삼성전자와 함께 취득했다. 삼성정밀화학은 지난달 23일 선에디슨반도체의 지분을 넘기면서 520억원의 투자금 회수에 들어갔다.

김지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지난해 에너지와 소재 사업부의 통합을 완료하고, PDP, 태양광 등 무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

획기적 체질 개선을 이뤘다면, 올해부터 성장 사업 중심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태양광을 야심 차게 키우기로 했던 4년 전과 사정이 많이 달라진 만큼 삼성 입장에서도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차라리 발을 뗀 게 삼성에게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삼성은 불투명한 태양광 사업보다 미래의 먹거리로 급부상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은 국내 의료기관뿐만아니라 웰닥과 같은 당뇨 관리 서비스에서부터 프리벤티스와 같은 심장 모니터링 장비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뇨 관리 서비스 블루스타를 출시한 웰닥과 삼성이 협업을 통해 차세대 당뇨병 관련 장비와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삼성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의료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캄보디아에 드림센터 3호 개교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한국·캄보디아 양국 정부 관계자, 현대차그룹글로벌 청년봉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플랜코리아 등 협력단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개교식을 가졌다. /현대차 제공

세계 최초 스마트폰용 원 메모리 '이팝'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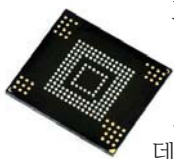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대용량 원 메모리 '이팝(ePoP·embedded Package on Package·사진)'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팝'은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컨트롤러 등을 하나로 묶은 기존의 eMCP(embedded Multi Chip Package) 제품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위에 바로 쌓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스마트폰용 '이팝'은 모바일 AP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수 있어 실제 장착되는 면적을 40%나 줄일 수 있다. 그만큼 더욱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

3기가바이트 저전력(LP)DDR3 모바일 D램과 32기가바이트 내장 스토리지(eMMC·embedded Multi Media Card)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기존 제품보다 속도나 전력 사용량, 크기 면에서 월등하다.

'이팝'에 탑재된 20나노급 3기가바이트(GB) 모바일 D램은 PC D램과 같은 초당 1866메가비트의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 6기가비트 D램 2개를 묶은 (1.5GB) 2쌍의 메모리가 모바일 프로세서와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해 최고의 성능을 구현했다.

백지호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마케팅팀 전무는 "대용량 '이팝'이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슬림한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더 빠르고 오래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팝'으로 프리미엄 모바일 시장의 성장세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삼성·LG 협력사 납품대금 미리 지급

국내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LG그룹이 설을 맞아 협력사 자금난 해소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약 7800억원, LG그룹은 1조1000억원 규모다.

4일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달 초 1조원이 넘는 협력사 물품대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약 7800억원 규모의 2차 물품대금을 다음주 초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은 매달 초와 중순 두 차례,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나눠 지급했다. 1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초 지급했고, 명절을 앞두고 약 7800억원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협력사에 지불하는 셈이다.

예정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설 전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삼성도 동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17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총 2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 일부 임직원과 협력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LG그룹도 협력회사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 납품 대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약 5000억원),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9개 주요 계열사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설 전인 6일에서 17일 사이에 협력사에 앞당겨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설과 추석을 합쳐 17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협력사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감성 스마트폰 '아카' 신개념 기능 추가

LG전자 감성 스마트폰 '아카'가 새로운 개념의 감성을 입는다.

LG전자는 '아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핵심 UX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아카' 위젯에 '툰(t-00-n)' 탭을 추가해 애니메이션 '로터리파크'를 바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로터리파크'는 LG전자와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인 '투바앤'이 기획 단계부터 '아카' 캐릭터와 관련 스토리를 공동 개발한 애니메이션이다. '로터리파크'는 현재 티저 영상과 예고편이 업로드 되어 있고, 첫 본편은 내달 중 공개 예정이다.

'아카'의 '움직이는 눈동자' 형상 관련 기능도 다양해 졌다. 눈동자 이미지가 실제 주변 기온에 따라 바뀐다.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눈동자 주변에 땀을 흘리고, 영하 이하가 되면 눈동자 주변에 입김이 뿌옇게 끼는 등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 전면커버인 마스크(Mask)를 끼고 있어도 후면키의 하단 볼륨 키를 길게 누르면,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카메라 촬영 모드에서 손쉽고 빠른 촬영이 가능해졌다.

'아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스마트폰 내 '설정→일반→휴대폰정보→업데이트 센터→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절차를 통해 실행 가능하다. 사용자가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 위의 3가지 추가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2/10 2PM. LAST TICKET OPEN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김상희
Music: MARTIN DOEPKE Book: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ECHER Lyrics: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HUMMIE MAN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WILLEM METZ MANAGEMENT
WMM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부진한 화학업계 차별화 전략 찾아라!

국내 화학업계가 부진한 4분기 영업이익률을 발표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저유가, 중국발 저가 석화제품 공세 등 장애물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이 비슷한 해외 업체들의 사정은 다르다. 결국 국내업체들의 안일한 경영전략이 실적부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4일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 IC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LG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한화케미칼 등 글로벌 톱100 기업에 속하는 4개사 영업이익률 평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글로벌 톱100 기업중 1~10위권 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2013년 9.5%에서 지난해 10.5%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석화 기업의 영업부진을 단순히 '업황'탓으로 미룰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석화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 정책이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220억7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억1300만 달러가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대중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IC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은 78.5%로 2012년 70.7%에서 2년만에 8%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중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실적악화로 돌아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석화분야의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키움증권 박중선 연구위원은 "국내 석화분야의 다변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대규모 설비를 통한 단일 품목 대량 생산 시스템은 시장에서 유동적 대처에 장애물이 된다"며 "일본의 '도레이케미칼', '미쓰비시케미칼'은 납사, 폴로늄 등 기존 대량 생산하던 것을 중단하고 탄소섬유 등 슈퍼섬유 생산에 집중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황유식 연구위원은 "기존의 제품을 경량화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도 석화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경총 "최태원·이재현 회장, 경영복귀할 수 있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최태원(사진)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그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해 2014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14조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한 최태원 회장, 문화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이재현 회장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준기자 rsunjun@

SK텔링크, 알뜰폰 이용자보호 결의대회 개최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대도시를 돌며 '알뜰폰 이용자보호 유통망 결의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기존 이동통신사 수준으로 개선하려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SK텔링크가 기획했다. SK텔링크는 현재 국내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SK텔링크는 이 행사를 통해 ▲유통망의 올바른 손님맞이와 관리 방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업무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 함께 이용자 보호와 클린 마케팅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방지 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결의대회는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3일 대구, 4일 서울, 10일 대전, 11일 광주 등 전국 대도시 5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린다. /유선준기자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한화 제공

세계 최대 태양광회사 출범

한화솔라원, 한화 큐셀로 통합…셀 생산규모 1위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했던 양대 축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이 '한화큐셀'로 통합, 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규모를 갖춘 태양광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화솔라원은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한화솔라원이 신주발행 방식으로 한화큐셀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통합되는 법인의 사명은 한화큐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종결되는 6일 그동안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해왔던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은 한화큐셀이라는 단일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사측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한화큐셀은 셀 생산규모만 3.28GW로 이 분야 세계 1위의 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현재 신·증설 중인 모듈 생산규모는 연말엔 3.23GW가 된다.

본사는 서울시 중구 장교동에 두게 되며 기존 남성우(작은 사진) 한화솔라원 대표가 새로 출범하는 한화큐셀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기존 한화큐셀의 독일 탈하임 본사는 기술혁신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한화큐셀이 영위하고 있던 독일의 앞선 기술력과 혁신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3GW 이상 생산규모를 보유한 경쟁사들이 모두 중국업체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독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각화된 생산기반을 통해 확고한 경쟁우위를 갖춘 태양광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한화큐셀은 다각화된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기존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글로벌 영업망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다운스트림(태양광 발전) 사업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에서 약 2GW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유럽·일본·북미와 같이 태양광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 대표는 "두 회사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2015년도에 의미 있는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에어부산,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전시회

에어부산 캐빈승무원과 승객이 함께 뜬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전시회가 4~5일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진행된다.

행복나눔서비스중 하나인 이번 행사는 150여명의 캐빈승무원이 틈틈이 뜨개질해 완성한 신생아 살리기 모자 200여개와 전시회장을 찾는 손님을 위해 모자뜨기 시연행사가 준비돼 있다.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직접 뜬 털모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에어부산 제공

지난 12월 에어부산을 타고 일본 도쿄와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으로 가는 손님들이 뜨개질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중간에 반납한 미완성 모자를 캐빈승무원이 이어받아 완성한 모자 30여개도 함께 전시된다.

200여개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는 전시회 이후 3월께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에 전달돼 신생아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감기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될 예정이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는 "매년 290만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난지 28일 안에 목숨을 잃는다는 공익캠페인을 본 후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며 "캐빈승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올해가 3년째인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행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직원뿐 아니라 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나눔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서경배·차석용 '효과'… 아모레·LG생건 '나홀로 호황'

요우커 면세점·해외사업 성장 견인… 브랜드숍은 해외 투자에 명암 갈려

끝이 안보이는 내수 불황 속에 화장품 업계 맞수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다스의 손'으로 평가받는 서경배(52·**사진 오른쪽**)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차석용(62·**왼쪽**) LG생활건강 부회장 효과에 요우커(중화권 관광객)에 힘입은 면세점 매출과 해외 사업 호조가 화장품 계열사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주요 계열사인 브랜드숍은 해외 투자에 따라 명암이 갈렸다.

◆"면세점·중국 등 해외, 일등공신"

아모레퍼시픽은 처음으로 '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화장품 계열사 매출은 4조 4678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23.3%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6638억원으로 44.2%나 늘었다.

국내 화장품 사업은 면세 채널이 이끌었다. 면세 매출은 7030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설화수, 헤라에 이어 아이오페를 추가로 입점시키면서 면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인 고객 수가 203%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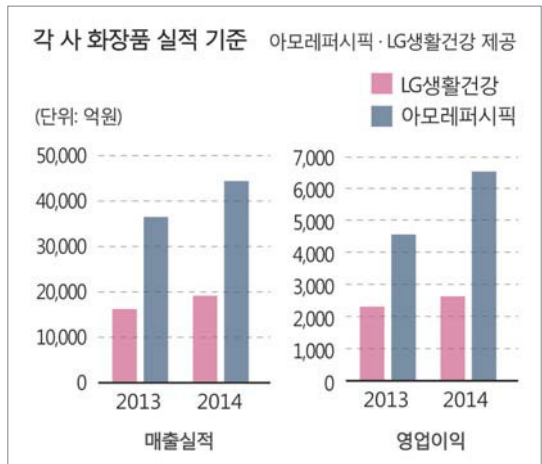
같은 기간 해외 매출도 8325억원을 달성, 전년 보다 무려 52.8%가 뛰었다.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중국에서만 467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히트 브랜드인 설화수는 국내외 합한 매출이 8000억원에 육박하며 '1조 메가 브랜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역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경배 회장은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12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3배에 달하는 목표치에 따라 올해 설화수, 마몽드 등 5대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외 사업은 비중이 2013년도 17.6%에서 지난해 21.5%로 늘었다"며 "국내도 면세 채널과 아리따움이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도 전 채널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자리 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사업은 매출 1조 9560억원, 영업이익 2724억원을 달성, 각각 17.7%, 16.8% 성장했다. LG생활건강은 매 분기마다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차석용 효과'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다.

후, 숨, 빌리프 등 프레스티지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60.9%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해외에서 화장품 매출은 3991억원을 기록했으며 중국에서만 매출이 143% 성장했다. 면세점 채널은 매출 비중이 15.3%로 2013년(5.9%) 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향후 주요 브랜드의 운영 품목수를 늘리는 한편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을 통해 중국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니스프리 성장…에뛰드·더페이스샵 숨 고르기

한편 브랜드숍은 해외 투자에 따라 실적이 엇갈렸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이 6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각각 4567억원, 306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이니스프리가 앞섰다. 54%나 성장하면서 76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더페이스샵이 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내려갔고 에뛰드는 56억원으로 79%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브랜드 재정비 차원에서 진행했던 중국 등 해외투자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 양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뛰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해외 에이전트와 거래 축소로 수출이 감소했다. 더페이스샵도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하면서 초기 투자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조인트벤처로 전환하고 직영매장을 확대해왔다.

양사는 올해도 포화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 중국 등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지난해 매출 615억원을 올려 가장 볼륨이 크기 때문에 올해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올해 태국에 첫 매장을 열며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장기불황의 그늘… 유통업계 '빨간불'

백화점·마트·홈쇼핑 작년 매출 하락

신세계백화점의 해외유명브랜드 대전. /신세계백화점 제공

폭풍 성장을 거듭하던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에 비상이 걸렸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영업 규제 등 영업 환경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전체 매출은 0.7% 역신장했다. 특히 백화점 업계 '빅3'인 신세계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3년보다 2.7% 줄었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 급격히 냉각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파격 할인 공세를 펼쳤으나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583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20.7% 급감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지난해 실적도 좋지 못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다.

'나홀로 승승장구'하던 홈쇼핑도 고개를 떨구고 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2014년 영업이익 신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GS홈쇼핑은 2013년 1566억원에서 9.7% 감소한 1414억원을 기록했다. CJ오쇼핑도 1572억원에서 9.6% 줄어든 1422억원대로 주저 앉았다. 다른 홈쇼핑 업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반에 소비 불황 그늘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경기가 안좋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득도 늘 수가 없어 앞으로도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업계는 코앞으로 다가온 설 대목을 앞두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신년세일, 혼수세일, 해외 명품 할인전, 설날 할인 등을 진행하며 고객 몰이에 나섰다. 대형마트과 홈쇼핑업계도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이마트, 설 한우 선물세트 가격 내렸다

이마트는 올 설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명절 선물세트 중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한우 선물세트 가격을 5~12%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갈비 1호(18만8000원→16만5000원), 한우냉장 1호(20만9000원→19만원), 한우냉장 3호(10만8000원→9만8000원) 등이 지난해 설보다 가격이 내려갔다.

한우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한우 시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마트는 설명했다.

롯데마트, '진심' 한우·한돈 판매

롯데마트는 5일부터 전점(제주점 제외)에서 롯데마트가 직접 사육 단계부터 관여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리산 진심 한우'와 '웰팜 진심 한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지리산 진심 한우'는 지리산 자락의 남원, 순천 등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300여 곳의 축산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한우 중, 1+등급 이상만 선별한 프리미엄급 브랜드 한우로 육질과 마블링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불황에도 밸런타인 초콜릿은 '명품' 선호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수입 브랜드나 수제 초콜릿 등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G마켓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를 앞둔 최근 일주일(1/27~2/2) 동안 초콜릿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배 이상(111%) 늘었다. 특히 초콜릿 중에서도 고급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수입 및 수제 초콜릿 판매가 전년 대비 26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도어 "톱스타 모셔라"

아웃도어 업계가 봄·여름 시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톱스타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서는 한편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장수 모델을 확보한 브랜드도 있다.

오프로드는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부터 배우 김영광(**사진 왼쪽**)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김영광은 최근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작년에 찍었던 화보 사진이 피노키오의 인기로 회자되는 등 드라마와 모델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화보를 공개하며 봄·여름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밀레도 이종석을 새 얼굴로 발탁했다. 또 박신혜를 2년 연속 발탁, 드라마에서 커플 호흡을 맞춘 두 배우를 모두 브랜드 모델로 내세울 수 있게됐다.

한편 장수 모델을 내세우는 브랜드도 있다. 새 모델을 찾기 힘든 시장에서 장수 모델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이더의 경우 배우 이민호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2011년 하반기부터 함께하고 있으며 블랙야크도 2011년부터 조인성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이 외에 K2(현빈), 센터폴(원빈·**오른쪽**), 레드페이스(정우성) 등도 장수 모델과 함께하는 대표 브랜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몰트 맥주시장 삼국지

'맥스생' 지난해 30% 성장, '클라우드' 1억병 돌파…'더 프리미엄 OB' 추격

새해에도 '몰트 맥주' 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존 몰트 맥주 시장을 이끌어 온 하이트진로에 롯데주류와 오비맥주가 가세하면서 몰트 맥주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몰트 맥주는 쌀·전분·밀을 넣지 않고 발아된 보리(맥아)만을 사용해 만들어 진하고 쌉쌀한 맛이 특징이다.

4일 하이트진로는 100% 보리맥주 '맥스'의 생맥주인 '맥스생(生)'의 지난해 판매량이 940만상자(1상자=500㎖*20병)로 2013년(733만 상자)보다 28.2% 늘었다고 밝혔다. 맥스생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맥스 판매량(1496만상자)도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2007년 10월 처음 선보인 맥스생은 맥스 판매량이 감소했던 2011~2013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매년 7~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맥스 전체 판매량에서 맥스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2.8%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앞으로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맥주로 국내 올 몰트 맥주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롯데주류의 '클라우드'는 출시 9개월만인 지난달 21일 1억병(330㎖) 판매를 돌파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20~69세까지 성인 인구를 약 3000만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인당 3병씩마신 셈이다.

롯데주류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 충주공장의 연간생산량을 5만㎘에서 10만㎘로 늘리는 증설작업을 끝냈다. 4월에는 연간 50만㎘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2016년 말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맥주시장의 30%에 해당하는 60만㎘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롯데주류 측은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1월 '더 프리미엄 OB'를 내놓으면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를 추격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프리미엄 OB는 100% 독일 노블홉과 독일 황실 양조장 효모를 사용해 만든 정통 독일식 올 몰트 맥주"라며 "최상급 맥주임에도 카스·오비골든라거와 같은 '착한 가격'으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맥스와 클라우드에 뒤처진 만큼 가격 경쟁력과 깊은 맛을 앞세워 3년 안에 1000만 상자를 판다는 목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몰트 맥주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딸기'에 빠진 호텔업계

호텔업계가 봄맞이로 분주하다. 봄이 다가오면서 앞다퉈 '딸기' 프로모션이 한창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딸기 디저트 뷔페를 올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신임 파티시에 황성훈 셰프가 선보이는 딸기 뷔페 앙큼상큼 스트로베리는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공되며 가격은 3만9000원부터다. 달콤한 30여종의 딸기 디저트와 함께 '라이브 딸기 코너'에서 파티시에가 즉석으로 제공하는 퐁듀, 크레페 및 와플을 맛볼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 더 라운지에선 오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머스트 비스트로베리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조리명장 이병우 총주방장이 엄선한 최고 품질의 딸기로 20여종의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딸기 케이크·타르트·롤·밀피유·크림브륄레 등 뛰어난 당도와 풍부한 과즙을 자랑하는 설향과 알찬 과육과 상큼한 향이 일품인 매향을 이용한 각종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낮 12시 30분부터 3시, 3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2부제로 진행되며 가격은 4만9500원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도 로비 트레비 라운지에서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제한 딸기 디저트 뷔페'를 운영한다. 딸기치즈케익·크림파이·밀푀유·도너츠·초콜릿을 입힌 딸기 등 150여 가지 딸기 디저트는 물론, 딸기 주스와 스무디까지 선보인다. 매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무제한 디저트 뷔페는 1만2500원, 커피 또는 차를 추가하면 1만9500원(봉사료·세금 포함)에 즐길 수 있다.

/김보라기자

1년새 2배… 쑥쑥 크는 탄산수 시장

지난해 400억 규모… 롯데칠성 최대 매출·하이트진로 100만병 돌파

직장인 김보영(27·여)씨는 탄산수 마니아다. 김씨는 "칼로리가 없어 살 찔 걱정이 없고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도 잘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하루에 마시는 탄산수는 평균 2~3병이다. 김씨처럼 탄산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탄산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탄산수 시장은 4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0% 성장했다. 2011년 110억원에서 2012년 13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탄산수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톡 쏘는 시원한 청량감에 당분·칼로리가 없어 '웰빙 음료'로 주목을 받고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측의 분석이다.

이 같은 탄산수 인기에 힘입어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는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트레비는 지난해 약 3300만개(500㎖ 페트 환산 기준)가 팔리며 전년 대비 568% 성장했다. 트레비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국내 탄산수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피트니스센터·클럽 등에서 주 타깃인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 이벤트 ▲다양한 맛과 패키지 출시 ▲유통 채널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친 게 주효한 것으로 롯데칠성음료 측은 설명했다. 올해는 휴대성과 패션성을 강조한 트레비 300㎖ 슬림페트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기간 하이트진로음료는 탄산수 '디아망'(330㎖)을 100만병 넘게 판매하며 지난해 보다 100% 성장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해 7월 여름 성수기를 공략하기 위해 휴대성을 높인 디아망 페트 패키지를 추가로 출시, 탄산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소용량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일화의 '초정 탄산수'도 선도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일화는 올해 패키지·소재의 다양화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웰빙 콘셉트의 건강 음료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를 볼 때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pjw@

롯데헬스원, '오자의 힘'

롯데제과의 건강식품 브랜드 롯데헬스원이 중장년 남성의 기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음료 '오자의 힘'(사진)을 출시했다.

오자의 힘에는 복합오자추출액과 홍삼농축액 등이 함유돼 있으며, 파우치팩(70ml)에 담아 휴대하기 좋고 마시기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오자는 동의보감 의 오자연종환(五子衍宗丸)에서 유래된 말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남성 기능 강화를 위한 처방 중 하나다. 가격은 6만9000원.

11번가, 자동차용품 할인

11번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동차 용품 60여 개를 총망라한 '한가족 차량점검' 기획전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놀이방매트(3P)를 50% 할인해 2만4000원에 판매한다. 4만원 상당의 '마제스틱 차량용 이중 멀티 테이블'은 58% 가격을 낮춰 1만6800원이다.

청소년기 두통, 턱관절 장애 탓?

장기적 치료 필요하고 예방이 최선… 잘못된 습관 개선해야

청소년기 자녀가 이유 없는 두통을 호소한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기의 턱관절 장애는 영구적인 얼굴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김선종(사진)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에게서 청소년기 턱관절 장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먼저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원판과 인대, 근육 등의 근골격계를 말한다. 턱관절은 입을 열고 다물거나 좌우상하로 움직이게 하며 음식물을 씹을 때 지렛대 역할을 한다.

턱관절 장애란 이 부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한다. 입을 열고 다물 때 관절음이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며 충치나 잇몸병 등이 없는데도 치통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얼굴에 변형이 오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한데 보통 하나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턱을 괴거나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등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등으로 무의식 중에 이를 꽉 깨물게 될 때도 턱관절에 무리가 간다. 부정교합이거나 평소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면 턱관절 장애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무리해서 턱을 사용하지 말고 껌이나 오징어 등 턱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는 음식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턱을 괴거나 이를 악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 교수는 "턱관절 장애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를 악물거나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부모님 잇몸 건강 챙기자!

특허받은 생약 성분 '인사돌플러스' 인기

다가오는 설을 맞아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로 건강 제품을 고르는 이들이 많다. 그중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입증된 생약 성분 의약품인 동국제약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사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 치대 치주과학연구팀과 충남대 약대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한 잇몸 건강을 위한 복합제다. 기존 '인사돌'의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에 '후박나무추출물'을 추가해 항염·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박나무추출물은 임상연구 등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주병 인균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았다. 더욱이 동국제약은 제품의 주요 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과 후박나무추출물 두 가지 생약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비율로 두 성분을 배합했다.

개발에 참여했던 배기환 충남대 명예교수는 "연구를 통해 잇몸병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비율을 찾았다. 인사돌플러스가 국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프리미엄 소주·와인으로 품격 선물

하이트진로 설 선물세트

하이트진로는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 소주부터 와인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소주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10년 숙성 일품진로 375㎖ 2병과 스트레이트잔 2개, 언더락스잔 2개로 구성됐다.

일품진로는 세계적 권위의 주류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명주다. 가격은 3만5000원 선이며, 전국 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 등 주요 매장에서만 판매된다.

단품·혼합형으로 구성된 35종의 와인 선물세트도 출시됐다.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수상 와인세트'부터 좋은 품질의 포도로 만든 '그랑뱅 세트' 등 구성이 다양하다. 가격대는 4만원부터 30만원까지다. 수상 와인세트에는 칠레의 3대 와인으로 꼽히는 뷰 마넨 시리즈, 2013년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IWC)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쏜 클락 윌리암 랜들 쉬라즈 등이 있다.

예술가 와인세트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 깐띠네 레오나르도에서 자부심을 갖고 생산한 와인이다. 백악관 만찬 와인세트는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만찬 때 쓰였던 특별한 와인이다. /박지원기자 pjw@

"백세주 사고 자양강장세트 받으세요"

강강술래, 2월 한달 경품 행사…'해독밥상' 등 길벗 추천도서도 선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순당의 자양강장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2월 말까지 매장에서 백세주를 시킨 고객에게 응모권을 1매씩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전통의 고급 제법으로 빚어낸 자양강장 세트(3만원)를 선물한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과 '나는 세계 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길벗의 추천도서도 증정한다.

'해독밥상'은 몸 안의 해독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켜주는 요리 등 몸 안의 독을 없애는 135개 요리를 소개하며, '비즈니스를 배웠다'는 세계2위 미니프린터업체 빅솔론의 해외영업부장인 저자가 세계전쟁사를 탐구하며 거물로 성장한 이야기로 방대한 역사지식과 실전비즈니스 노하우를 담았다.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품격과 정성을 담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6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선보인다.

또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에 판매하며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11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박지원기자

삼육의 정신으로 함께 달린다

김상래 총장 등 300명 美 마라톤 대회 참가

/삼육대학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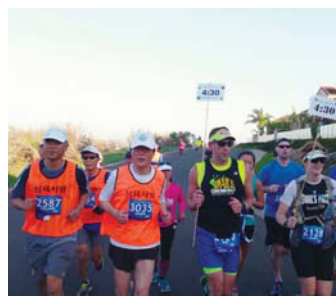
삼육인들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함께 달리며 동문의 힘을 알렸다.

삼육대학교는 김상래 총장 등 교수와 그 가족 36명과 미주 동문 등 총 300여 명의 삼육인이 '2015 Surf City USA Marathon'에 참여해 풀코스와 하프코스를 함께 완주했다고 4일 밝혔다.

삼육인들의 단체 마라톤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삼육인 2000여 명은 'YTN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또 이날 이들은 '삼육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삼육의 정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김 총장은 5시간7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3번째 완주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함께 출전한 조광현 경영학과 교수는 풀코스를 3시간8분에 주파하며 55~59세 그룹에서 2위를 차지했다.

김 총장은 "미주사회에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삼육인들이 한 마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했다. 한 번 한다면 반드시 해낸다는 삼육의 정신과 동문 파워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국토부 주거정책 내놨지만 효과 '글쎄'

신개념 임대주택 뉴스테이 놓고 건설사 눈치 보기
수익형공유형 모기지 출시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연초 내놓은 주택분야 핵심정책 '민간임대주택'과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까지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업을 확정한 대림산업을 포함해 6~7개 대형건설사가 검토는 하고 있다지만 최대 관건인 수익성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착공 가능한 뉴스테이용 택지를 공개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연립부지가 많고 땅값도 예상보다 비싸 수익률 맞추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이 수익성까지 낮을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명문가 실리 모두 잃게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부가 건설사들의 향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앞당겨 준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돈도 안 된다면 굳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다 쓰는 것도 건설사들은 부정적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임대아파트에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 누가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 할 지가 문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대"라며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도 심한 상황에서 최소 70만~80만원에 이르는 월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임대아파트용 브랜드에 들어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출시키로 한 1%대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출가능 조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완화함으로써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수익을 은행과 나눠야 하는 상품의 구조상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관리팀 부장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상주택을 확대했는데, 해당 구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겠느냐"며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한 채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주택공급량 연간 33만 가구 적당"

2022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 가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보다 6만 가구가량 많은 연간 39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어 과잉이 우려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유효공급량은 2015년 34만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22년 29만5000가구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임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보고, 2000~2014년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차감해 수치를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추정한 2015~2022년 연간 유효공급량은 34만5000~29만5000가구로, 연평균 33만1000가구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34만5030가구에서 2016년 34만499가구, 2017년 33만5914가구 등 점점 줄다가 2022년 29만5470가구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수요량을 39만 가구로 잡고 공급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추산한 유효공급량을 크게 웃돌아 초과되는 물량은 미분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폐지,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공급량 유지는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구매수요 감소라는 위험 요소를 반영한 공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쌍용건설 싱가포르 지하철공사 무재해 신기록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지하철 공사 무재해 1500만 인시 기록을 세웠다. 사진은 쌍용건설이 대기록을 달성한 도심지하철 (DTL) 921 현장. /쌍용건설 제공

'힐스테이 광교 오피스텔' 최고 경쟁률 기록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과 3일 수도권 신도시 광교에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평균 422.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서울 전세대란 다시 온다

강남·잠실·강동 재건축 이주민 이사 준비

서울 전세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집주인들은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 업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전셋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수기인 1월임에도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초구와 강동구 재건축 지역 위주로 일주일 사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동 주공4단지 400여가구를 시작으로 명일동과 상일동 등에서 4000여가구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를 준비 중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가락동 시영아파트는 올 초 착공에 들어 간다. 전체 6600가구 중 대부분은 이미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마친 상황이라 잠실·강동 일대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 일대 재건축 지역은 더 심각하다. 1400가구에 달하는 개포주공 2단지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신청안이 승인되면 바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포시영(1970가구)과 개포주공 3단지(1160가구)는 각각 3월과 4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 늦어도 2~3달 뒤부터 이주를 할 예정이다.

개포주공 1단지(5040가구)와 4단지(2840가구)도 상반기 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개포동에서만 총 1만2000여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 한양, 한신 5차 아파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 일대 전지역에서 전세난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10억원을 상회했다. 반포동 반포리체 아파트의 전셋값은 전용 59㎡가 7억5000만원으로 매매가 8억6000만원의 88%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64%까지 치솟았다.

재건축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큰 단지에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등 이주시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주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 대출 부담은 적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다. 연립주택 쪽으로도 가격 오름세가 번져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뭘 해도 귀엽다고만 하네요"

이제 데뷔한 지 갓 보름을 넘긴 6인조 신인 걸그룹 '여자친구'는 국내 최장수 남성 아이돌 그룹 신화처럼 되고 싶다고 했다. S.E.S·핑클·베이비복스·원더걸스·소녀시대 등 수많은 걸그룹 선배들을 두고 신화를 롤모델로 꼽은 이유에 대해 "신화 선배님들처럼 꾸준히 사랑받으며 따로 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며 "10년이 지나도 저희 6명이 함께 했으면 한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6인조 신인 걸그룹 여자친구

섹시 대신 순수 매력 '물씬'… "신화 선배처럼 되고파"

◆ 모두의 여자친구가 될래요

팀명 여자친구는 누군가의 애인이 아닌 좋은 친구처럼 친근하게 옆에서 음악 하는 그룹이 되자는 의미에서 지었다. 같은 반 친구나 옆집 소녀처럼 친근한 느낌이 이들의 가장 큰 매력이다. 데뷔곡 '유리구슬' 역시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연습생 시절 여러 선배 가수들의 노래와 안무로 연습해봤는데, 저희는 아무리 섹시한 척 하려고 해도 애쓴다는 느낌뿐이었어요(웃음). 주위에서도 뭘 해도 귀엽게만 보이니 섹시 콘셉트는 하지 말라고 하던걸요. 억지로 어떤 느낌을 추구하기 보단 저희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소원)

모든 아이돌 그룹에게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연습생 생활은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더 소원의 연습생 기간은 5년으로 그의 인생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긴 시간이다. 나머지 멤버들 역시 평균 2~3년의 시간을 가수 데뷔에 투자했다.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어요.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예고에 진학한 뒤로는 응원해주고 계시죠" (예린)

"가수가 되고 싶단 생각보단 그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고에 진학했는데, 운이 좋게도 예비 소집일 날 캐스팅 돼 오디션을 보게 됐죠." (엄지)

멤버 신비는 어린 시절 '춤 신동'으로 SBS '스타킹', '진실게임'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 유리구슬처럼 맑고 투명한 그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9세로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다. 가수로 활동하며 놓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터.

"학교 끝나고 연습실로 바로 가야하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떡볶이 먹는 걸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바쁜 걸 아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죠. 서운해서 '왜 나는 안 불렀느냐'고 하면 '넌 어차피 못 가잖아'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소원)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앞다퉈 족발, 치킨, 떡볶이 등을 꼽았다. 영락없는 여고생이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자세만큼은 진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가수는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수록곡 '하얀마음'을 아카펠라로 선보였다.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인터뷰 장소에 울려 퍼졌다.

"작사·작곡에 관심이 많아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간 여자친구 앨범에 제가 만든 노래를 싣고 싶어요. 얼마전 어머니 생신에 직접 노래를 만들었는데, 은하가 화음을 넣어줬어요." (유주)

데뷔한지 이제 겨우 보름이지만 온라인에서 반응이 좋다는 말에 은하는 "휴대전화도 없어서 지금 반응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며 "첫 무대도 얼떨떨한 상태로 해서 우리가 데뷔한 게 맞는지 아직도 실감 안 난다"고 말했다.

꿈만 같았던 가수의 꿈을 이룬 지금 이들의 목표는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 출연하는 것이다. 꿈치고는 소박하다는 말에 이들은 "사실 신인상을 받고 싶다. 불러만 주신다면 어떤 시상식이든 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예린 은하 신비 소원 유주 엄지

star bag

'순정에 반하다'서 형사

배우 **조은지**가 JTBC 새 금토드라마 '순정에반하다'에 출연한다. 그가 분한 나옥현은 서대문 경찰서 의리파 형사다. 의리 있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극에 생동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순정에 반하다'는 냉혈남이 새 심장을 얻은 뒤 한 여자에게만 순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로맨틱 드라마다. 4월 초 첫 방송된다.

5월 2일 내한공연 개최

폴 매카트니가 5월 2일 오후 8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를 통해 내한 공연을 연다. 폴 매카트니는 지난해 5월 첫 내한공연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성 염증에 따른 건강악화로 공연을 취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티켓은 오는 12일 오후 12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판매된다.

솔튼페이퍼와 노래 호흡

배우 **박신혜**가 뮤지션 솔튼페이퍼와 부른 '완벽해요'가 4일 공개됐다. 솔튼페이퍼가 만든 아름다운 선율과 타블로가 쓴 서정적인 가사, 박신혜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는 평가다. 박신혜 측은 "평소 솔튼페이퍼의 음악을 즐겨들었다"며 "겨울, 듣는 이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서 봉사활동

배우 **정태우**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지난달 20일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귀국했다. 정태우는 10년 전 처음 캄보디아 해외사업장을 방문해 결연아동을 만났다. 다시 찾은 캄보디아에서 북부 지역 안롱벤 마을의 소녀 탕유, 남부 지역 캄퐁트락 마을의 소녀 럭스마이 두 명을 추가로 결연 맺고 후원하기로 했다.

현실과 만나는 '보이첵'

극단 노을 10주년 첫 작품… "강자도 결국 약한 존재"

극단 노을이 선보이는 연극 '보이첵'이 갑을 논란이 뜨거운 현실에 메시지를 던진다.

연출을 맡은 오세곤 교수는 "강자로 보이는 이들도 더 강한 힘에 강박 받는 약한 존재일 뿐"이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보이첵'은 19세기 초 독일의 요절 작가 게오르그 뷔히너의 작품이다. 그가 죽은 뒤 36년이 지나 발견된 미완성 희곡으로 그동안 연극·오페라·영화 등으로 발표되며 꾸준히 사랑 받았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뮤지컬로 각색돼 공연된 바 있다.

작품은 연상의 내연녀를 살해한 후 사형 당하는 동명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다. 그러나 단순한 치정 살인 사건을 넘어 자신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사회의 원초적 부조리와 폭력성, 인간의 허약함을 이야기한다.

노을의 '보이첵'은 극의 밀도를 높이고자 5명의 배우만으로 대본으로 재구성했다. 절제된 대사와 음악·노래·춤, 기하학적인 무대로 완성도를 높였다.

보이첵 역을 맡은 신동선은 "주인공의 정신 분열 증세"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으며 "보이첵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여지는 데 초점을 맞춰 연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극단 노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매너 없는 상위 1% 향한 하이킥

신사 변신한 노동계급 청년의 첩보작전… 유쾌+통쾌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에그시(태런 애거튼)는 특별한 것 하나 없는 노동 계급 청년이다. 동네 건달을 애인으로 둔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기특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동네 불량배들과 매일 싸움이나 하며 일상을 허비하던 에그시의 앞에 어느 날 의문의 남자 해리 하트(콜린 퍼스)가 나타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비밀 첩보원이 되는 것이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모든 것은 해리 하트의 이 짧은 대사에 담겨 있다.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동네 불량배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해리 하트의 액션에는 묘한 쾌감이 있다. 댄디하고 젠틀한 신사들이 비밀 첩보 작전을 벌인다는 이 독특한 설정이 곧 '킹스맨'의 매력 포인트다.

별 볼일 없는 청년이었던 에그시는 해리 하트를 만나 킹스맨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한 인물로 거듭난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깨우치며 성장하는 이야기는 슈퍼히어로의 익숙한 이야기다. 그러나 '킹스맨'은 곳곳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담아 기존 슈퍼히어로 장르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인간을 지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여기는 희대의 악당 리치몬드 발렌타인(사무엘 L. 잭슨)의 개성적인 캐릭터도 영화를 한층 긴장감 있게 이끈다.

훈련을 통해 비밀 첩보 요원으로 거듭나는 에그시는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모종의 음모와 맞서야 한다. 그 음모 의 중심에 돈과 권력을 지닌 '상위 1%'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킹스맨'의 쾌감은 노동계급 청년이 수트 차림의 신사가 돼 매너 없는 부유층을 응징한다는 스토리 라인에 있다. 잔인함과 유쾌함이 만난 통쾌함이다.

매튜 본 감독은 '킥 애스: 영웅의 탄생'에서 드러냈던 폭력성을 '킹스맨'에서 보다 더 과장시켜 밀어 붙인다. 여기에 냉소적인 태도까지 더해진 만큼 영화는 관객의 취향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킹스맨'은 매튜 본 감독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고급스러움과 불량스러움을 이렇게 잘 녹여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청소년 관람불가. 2월 11일 개봉.

'시간 이탈한' 임수정·조정석·이진욱

'시간이탈자' 크랭크업

임수정(사진 오른쪽), 조정석(왼쪽), 이진욱 주연의 영화 '시간이탈자'(감독 곽재용)가 지난 1일 서울 종로에서의 촬영을 끝으로 4개월 동안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시간이탈자'는 1983년과 2015년의 두 남자가 우연히 꿈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보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연결된 한 여자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임수정은 1983년 지환(조정석)과의 결혼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윤정 역과 2015년 건우(이진욱)를 만나 과거의 사건을 함께 쫓기 시작하는 당찬 성격의 소은 역을 맡아 생애 첫 1인2역 연기에 도전했다. 조정석은 윤정의 연인이자 음악교사인 지환 역을, 이진욱은 꿈을 통해 지환을 알게된 뒤 과거의 사건을 추적해가는 형사 건우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촬영을 마친 뒤 임수정은 "오늘이 마지막 촬영인데 믿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윤정과 현재의 소은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이탈하는 것 같은 감정의 경험을 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정석은 "기분이 남다르다. 그동안 열심히 촬영했던 장면들이 어떻게 완성될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진욱은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여운, 좋은 감동을 전할 작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출은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의 곽재용 감독이 맡았다. 후반 작업을 거쳐 올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김장훈·최민수 '두 상남자의 만남'

25일 조인트 콘서트

가수 김장훈(사진 오른쪽)과 배우 최민수(왼쪽)가 조인트 콘서트를 연다.

김장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하는 단독 공연 '국가대표' 표가 조기 매진되자 이달 10일과 25일에 2회 공연을 추가했다. 최민수는 이중 서울 대학로 홍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5일 공연에 함께한다.

김장훈은 "최민수와의 조인트 콘서트는 기존의 형식과 사람들의 상상을 깨는 흥미롭고 희한한 공연이 될 것"이라며 "최민수가 록(Rock)이라면 나는 파격적인 형식의 연주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두 상남자 뮤지션'의 호흡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민수 형은 음악인으로서 매우 독창적이고 뛰어나다"며 "뮤지션 최민수의 앨범을 들었거나 공연을 봤다면 그가 자신의 소리와 철학을 발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아성찰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칭찬했다.

최민수는 5일부터 개인연습실에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평소 밴드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는 지난해 전곡 작사·작곡한 정규 음반을 발매했다. 올해 역시 2장의 싱글 앨범과 정규 2집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슈틸리케 휴가차 유럽행

K리그 개막 전 귀국

2015 호주 아시안컵을 마친 울리 슈틸리케(사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휴가를 떠난다.

대한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이 6일 출국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귀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귀국일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7일 K리그 클래식이 개막하기 전에는 돌아올 계획이다.

그는 이번 휴가 기간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후에는 3월에 예고된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데이에 열릴 평가전을 준비한다. /김민준기자

"어수선한 분위기 없다… 열기 최고"

롯데 새주장 최준석 "올해 개인 기록보다 팀 위해 뛸 것"

새롭게 롯데 자이언츠의 주장을 맡은 최준석(32·사진)이 어수전한 팀 분위기를 다잡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최준석은 4일 롯데의 스프링캠프 훈련이 진행 중인 미국 애리조나 피오리아에서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개인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내 역할이 커진 것 같다. 선수단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롯데는 시즌 초반만 해도 우승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시즌 후반 뒷심 부족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뒤 김시진 감독이 교체됐다. 이어 자유계약선수(FA) 장원준을 두산에 뺏겼고, 불펜투수 김사율과 유격수 박기혁마저 KT로 떠났다.

주장 최준석은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를 다잡아야 하고, 올 시즌 4번 타자로서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롭게 바뀐 이종운 감독 체제에서 코치진과 선수들의 가교 역할도 그의 몫이다.

최준석은 "야구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떠난 자리는 또 다른 선수가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돼야만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단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제 캠프 중반인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개인적으로 올해 캠프 분위기는 역대 최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석은 지난 시즌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6, 23홈런, 90타점, 장타율 0.507을 기록했다.

그는 "올해 4번 타자보다는 팀의 네 번째 타자라는 각오로 타석에 임하겠다. 물론 중심타자로서 홈런과 타점에 대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팀이 원하면 희생번트도 대고, 볼넷으로도 걸어나겠다"며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 결장

팀은 하노버와 무승부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활약하는 구자철(26·사진 왼쪽)과 박주호(28·오른쪽)가 나란히 리그 경기에 결장했다.

마인츠는 3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19라운드 하노버96과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지난달 호주에서 끝난 아시안컵 축구대회 경기 도중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다쳐 대회 도중에 귀국한 구자철은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다.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돼 화제를 모은 수비수 박주호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출전 선수 명단에 빠졌다.

마인츠는 전반을 0-1로 뒤졌으나 후반 32분에 엘킨 소토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승점 1점을 챙겼다.

한 달여간의 리그 휴식기를 마친 뒤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한 마인츠는 분데스리가 18개 팀 가운데 10위(4승10무5패)를 달리고 있다.

한편 리그 선두인 바이에른 뮌헨은 샬케04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맨유, 케임브리지 3-0 꺾고 체면치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빈 반 페르시가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4부리그)와의 2014-2015 FA컵 32강 재경기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케임브리지와 0-0으로 비기며 자존심을 구긴 맨유는 이날 후안 마타, 마르코스 로호, 제임스 윌슨의 연속골이 터지며 3-0으로 승리했다. 맨유는 17일 프레스턴 노스 엔드(3부 리그)와 8강 진출을 놓고 다툰다. /AFP 연합뉴스

"청용아! 빨리 맞대결 하자"

런던 향하는 기성용 기대감 표명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이 친한 친구인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맞붙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기성용은 4일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전성기가 많이 남지 않은 터라 청용이와 다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뤄져 기쁘다"며 "이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에 많이 나서지 않은 선수들도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소화해 팀 분위기를 좋게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정성룡 형에게

특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주장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며 "(박)지성이 형이나 그전의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 성숙한 면모를 보였다. /김민준기자

바르셀로나 "이승우 떠나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 일축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승우(17·사진)를 노린다는 관측이 일자 FC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유망주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페인 스포츠전문매체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가 이승우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쳐뒀다"며 "이승우는 몇 년간 바르셀로나에 머물 것"이라고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전날 레알 마드리드가 이승우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마르카 기사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스포르트는 이승우가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일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스포르트는 "지난해 이승우의 에이전트이자 주제프 과르디올라 전 바르셀로나 감독의 형제인 페레 과르디올라를 통해 이승우와 4년간 영주권, 노동권 등에 걸친 계약을 맺었다"며 "이승우의 뛰어난 기량을 고려해 파격적인 경제적 조항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1군에서 뛰겠다는 꿈을 이루고자 오래도록 시련을 참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승우는 조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어떤 팀에 가더라도 18살이 되는 2016년 1월까지 뛸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이승우가 다른 팀에 갈 유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우는 2009년 서울 대동초 시절이던 2011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한 유망주다.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걸려 2013년부터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이승우와 재계약을 맺고 이승우 붙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춘권, 봄을 싸서 먹는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입춘이 지났다. 아직 바깥 날씨는 한 겨울 추위가 한창 이지만 절기상으로는 이미 봄이 시작됐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됐으니 크게 길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 경사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새봄을 맞아 축하음식을 빼놓으면 서운한데 입춘에 먹는 음식으로는 춘권, 즉 스프링 롤이 어울린다.

밀전병에 채소와 당면, 쇠고기, 새우 등을 싸서 튀긴 춘권을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전해진 딤섬으로 알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입춘에 먹었던 음식이다. 이름부터 봄 춘(春)에 돌돌 만다는 권(捲)자를 써서 춘권이니 봄을 돌돌 말아서 먹는다는 뜻이다. 영어 이름인 스프링 롤 역시 봄(spring)을 말았다(roll)는 뜻으로 춘권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말이다.

봄을 돌돌 말아 먹는다는 낭만적인 이름의 춘권, 스프링 롤에는 아시아 사람들의 새봄맞이 소망이 담겨 있다. 춘권은 옛날 동양에서 입춘에 빠지지 않고 먹었던 다섯 가지의 매운 채소, 즉 오신채가 뿌리다. 우리나라 「동국세시기」에도 입춘이면 경기도 마을에서 매운 채소를 캐다가 임금님께 진상한다고 했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채소의 종류는 다르지만 주로 파, 마늘, 부추, 달래, 여뀌를 쟁반에 담아 먹으며 새봄이 온 것을 축하했다. 오신채는 매운 맛의 채소이기 때문에 식욕을 돋울 뿐만 아니라 오장(五臟)을 통하게 한다고 했으니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채소를 먹으며 봄기운도 미리 느끼고 건강도 챙기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오신채가 춘권, 스프링 롤로 발전하는 것은 중국 송나라 무렵이다. 다섯 가지 채소를 그대로 혹은 양념을 해 먹다가 12세기 무렵부터 밀전병에 싸서 요리했는데 당시는 밀가루가 최고급 음식재료였으니 오신채를 밀전병에 말아놓은 춘권 역시 최고급 요리였다.

입춘이 지났으니 봄 또한 멀지 않았다. 봄을 돌돌 말아 먹으며 겨울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기운도 듬뿍 받으면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들이 보건분야로 전공 바꾸고 싶대요
적성 맞게 진로 선택을… 강한 반대 유의

알고 싶어요. 남자 94년 12월 28일 오전 9시 35분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의 군대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이 울산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군대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전공이 전기공학인데 적성이 안 맞는다고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들은 보건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저는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의 상담에 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의 답변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과거에 대학교에서 취업률을 올려 발표할 때 군대에 입대한 학생을 취업한 것으로 간주 하여 발표 한 적도 있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드님은 2015년부터 입대가 가능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창업이 쉽지도 않은 요즘 도대체 내 미래가 무엇이어야 하는 지 어떤 것을 내 진로로 선택해서 확고하게 밀고나가야 할 지 학생들은 아마 참 선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느냐 입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더 잘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틈틈이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각자 자신들의 일이기는 하나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사주로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다를 경우 흥미는 즉흥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흥미는 상황이나 환경 등의 변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적성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그 안에서 또는 더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님의 조언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천지합덕(天地合德)하는 명으로 총명하고 근본적으로 심성이 착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에 꼼꼼하고 간혹 과격한 기질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강한 반대는 부자사이가 멀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2		
			2			3	8	
6		3						
			5	2				1
			8		6			
9				7	4			
						6		3
	8	5			1			
		4	9					5

2			8				5	
		6						8
	3			1	6	2		
			4	3				9
5								4
8				2	9			
		1	3	5			4	
3						7		
	8				4			2

스도쿠 정답

5	1	8	3	6	7	2	9	4
4	7	9	2	1	5	3	8	6
6	2	3	4	8	9	1	5	7
8	4	6	5	2	3	9	7	1
1	5	7	8	9	6	4	3	2
9	3	2	1	7	4	5	6	8
2	9	1	7	5	8	6	4	3
3	8	5	6	4	1	7	2	9
7	6	4	9	3	2	8	1	5

2	7	9	8	4	3	6	5	1
1	5	6	9	7	2	4	3	8
4	3	8	5	1	6	2	9	7
6	1	2	4	3	5	8	7	9
5	9	3	6	8	7	1	2	4
8	4	7	1	2	9	5	6	3
7	2	1	3	5	8	9	4	6
3	6	4	2	9	1	7	8	5
9	8	5	7	6	4	3	1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5일 (음 12월 17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한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이 터집니다. **60년생** 사고 위험이 있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72년생**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84년생**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49년생 갈길은 멀고 여유는 없으니 답답합니다. **61년생**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지나친 과욕은 주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주위의 관심을 받게되는 하루입니다.

50년생 이동할 일이 있다면 동쪽이 좋습니다. **62년생** 지쳤으나 쉴 수 없으니 몸이 힘듭니다. **74년생** 어렵다 생각했던 일에 한번 관심을 가지세요. **86년생** 부드럽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51년생 가족간에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63년생**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75년생** 산 넘어 산이니 문제가 계속됩니다. **87년생**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54년생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좋습니다

55년생 겸손하게 대처해야 다툼을 면합니다. **67년생** 새로운 동업자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가족과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새로운 사람과 만나지만 불편함이 있습니다.

56년생 와달라는 곳이 많아 분주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시험이 있으면 도전하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윗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92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57년생 주위에서 오해해도 꿋꿋하게 대처하세요. **69년생** 노력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93년생**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게 좋습니다.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59년생 본인의 생각을 떳떳하게 밝히는게 좋습니다. **71년생** 건강에 적신호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83년생** 사업을 구상한다면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95년생** 실속있는 일에 집중하는게 필요합니다.

봄맞이 함께해요~ '입춘'인 4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입춘방을 붙인 뒤 따뜻한 봄 볕을 머금은 대문을 열며 새 봄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대학생>

67% "위안부에 이미 배상"

한·일 대학생 설문조사

한국 대학생 94% "공식 사과·배상 필요"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 정부가 충분히 배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연합 동아리 '생존경쟁'팀은 한·일 수교 50년을 맞아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양국 대학생 각 25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도쿄의 중심 거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팀은 양국 대학생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히 배상(37.6%)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을 원치 않는다"(30.0%)고 답했다. 반면 한국 대학생의 94.4%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양국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역사 교과서 개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 등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근거한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묻는 항목에 일본 대학생(50.4%)과 한국 대학생(64.8%) 반수 이상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대학생들은 "논란이 있으나 일본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올바른 방향이므로 지지한다"(각 18%)고 아베를 두둔하는 견해를 밝혔지만 13.6%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 타격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국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대학생들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인식 차이"(78.4%)라고 꼽았다. 일본 대학생들은 같은 의견(46.4%)을 피력하면서도 "아베 정권의 정치적 성향"(19.2%), "국민 간의 감정"(18.8%), "각 분야의 경쟁 구도"(15.6%)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을 활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운전자 절반,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날 뻔"

운전자의 절반 남짓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로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일반 운전자 310명, 화물차 운전자 310명 등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 운전자의 15.9%는 실제 사고를 겪기도 했다.

화물이 적재함 밖으로 돌출돼 있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다는 일반 운전자도 54.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겪은 일반 운전자는 13.3%였다.

일반 운전자가 화물을 위험하게 고정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되는 도로는 지방국도(44.4%), 고속도로(38.2%), 시내도로(13.8%), 이면도로(3.6%) 등 순이었다.

화물을 위험하게 고정한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간으로 일반 운전자는 '커브길'(45.3%)과 '고속주행 상황'(23.4%), '급정지 상황'(19.5%)을 주로 꼽았다.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30.0%에 그쳤고, 37.8%는 적재물 고정 방법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또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아 단속된 적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18.8%에 불과해 경찰의 사전 단속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기자

사랑을 물려준 졸업식 4일 대구 달서구 영남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교복을 물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기관 갈등 '분쟁닥터'가 해결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이에 개입해 조정·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닥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사회적인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닥터를 통해 양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키로 했다.

야간·휴일에도 진료하는 어린이병원 20개소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2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9개 병원과 병원 인근에 '달빛 어린이약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4개월간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0만명을 넘었다.

이에 복지부는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올해 중으로 병원을 현재의 2배가 넘는 2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된 병원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주요 언론과 육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인사

■ 특허청

◇ 부이사관급 전보 ▲ 송무팀장 송병주 ▲ 상표심사1과장 강철환 ◇ 과장급 전보 ▲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현진 ▲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김동엽 ▲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 김영수 ▲ 복합디자인심사팀장 소진혹 ▲ 특허법원 파견 김종찬 ▲ 황은택

■ 농촌진흥청

◇국장급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허건양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용범 ◇ 과장급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김상남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최유림 ▲농자재산업과장 박연기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이상영 ▲ 가공이용과장 유선미 ▲ 발효식품과장 송금찬 ▲ 기능성식품과장 최정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 김명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박경숙 ▲국방대학교 파견 최동순 ▲통일교육원 파견 이명숙

■한국예탁결제원

▲ 총무부 안전관리팀장 류병국

■ 동양생명

<승진> ◇임원 ▲전무 김인석 ▲이사대우 정경영 ◇팀장 ▲준법감시팀장 서혜연

■ 대한지적공사

◇ 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이사) 최종만 ▲ 공간정보사업본부장 사재광 ◇ 실장 ▲ 기획조정실장 주한돈 ▲ 지적사업실장 유은상 ▲ 공간정보사업실장 권중일 ▲ 경영지원실장 허의환 ▲ 국토정보교육원 인재개발실장 최원준 ▲ 교육지원실장 안종 ▲ 교육운영실장 김장현 ▲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

■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경정급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 박남희 ▲ 운영지원계장 박영현 ▲ 경비구난계장 옥창묵 ▲ 해상안전계장 곽윤희 ▲ 상황센터장 김기용 ▲ 상황센터장 이급영 ▲ 상황센터장 강우형 ▲ 훈련단정 신덕식 ▲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김열호 ▲ 경비구난과장 윤창섭 ▲ 해상수사정보과장 이우수 ▲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난과장 강수주 ▲ 해상안전과장 이종만 ▲ 3007함장 이운성 ▲ 1511함장 전문권 ▲ 1512함장 김종인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김용우 ▲ 경비구난과장 이승일 ▲ 해상안전과장 황선권 ▲ 해상수사정보과장 강봉석 ▲ 1510함장 성창현 ▲ 1003함장 한상철 ▲ 1008함장 김종운

부고

▲최동희씨 별세, 김정기(사업)·정준(평화엔지니어링 전무)·재경(수원여대 교수)·태경(주부)씨 모친상, 이순우(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씨 장모상 =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02-2227-7500

▲신현철씨 별세, 신정환·상환(보험개발원 생명보험상품팀 부장)·지연씨 부친상 =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2072-2020

▲ 신현모 씨 별세, 신혜숙·영철(건국중학교 교사)·성철(연합뉴스 자카르타통신원)·혜경 씨 부친상 = 4일 오전 6시 45분, 건국대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6일. 010-6466-8103

▲ 최태선씨 별세, 백종현(영남일보 구미담당 차장)씨 모친상 = 4일 오전 6시,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오전 7시. 054-468-9114

▲ 김상원씨 별세, 김세용(MBC 미래방송연구소 부국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9시 25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5일, 010-7110-1642.

<성폭력>

"육군대장 피해자에 책임 전가"

군인권센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거취 표명해야"

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언급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발언이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 사령관, 8개 군단장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많은 군인이 이를 시청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의 피해 여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대 1 면담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제주 바다를 지키자! 4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덕부녀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제주시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온 괭생이 모자반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괭생이 모자반은 제주, 전남 신안 등에서 지난달 관측된 후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그만"

청소용역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아

청소용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51) 성남시장이 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시장은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언론사는 이 시장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이 시장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 시장을 상대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청에 출석한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는 MB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종북몰이는 이번 수사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고압가스 운반차량 고가도로서 전도 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8번국도 죽산방면 단원고가도로 입구에서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한복판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38번국도 양방향에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으며 안성소방서는 가스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즉각 출동시켰다. /연합뉴스

부동산실명법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자진신고 땐 과징금 감경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현정기자

'흙탕물 조합장 선거'

검찰, 선거사범 현재까지 83명 입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4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상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 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 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

"가습기 살균제 허위 표시에 시정명령 적법"

대법원 3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시는 2000~2011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폐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옥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표시했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현정기자